촉지적 공간에서의 감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nsibility Characteristics in Haptic Space

Author 서보람 Seo, Bo-Ram / 정회원, 호서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오영근 Oh, Young-Keun / 명예회장,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공학박사

Abstract Although vision has been considered as a top sensory organ in the Western culture until modern times, the significance of space experience that communicates with a body via complex perceptions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This study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a vision-centered space and has the goal of empirically examining the sensibility characteristics in a haptic space through post-structuralism views leading up to Gilles Deleuze's philosophical idea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flow of senses from the philosophical and artistic standpoint and the sensibility characteristics in a haptic space by examining the theories on haptic perceptions in connection with a space. In order to test the existing theorie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ensibilities depending on perceptual method, the sensibilities of participants were compared using SD method (Semantic Differential scale method) and a validity test was conducted using a statistical program SPSS. The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average sensitivity scale of complex haptic perception was higher than single perception that only relies on vision. In ad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perceptual method based on various sensory organs and human sensibil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a foundation for empirical research on sensibility, since it has re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articipants and demonstrated and analyzed their sensitivities through an experiment.

Keywords 감성, 시각적 공간, 촉지적 공간, 움직임
Emotion, Optical space, Haptic space, Move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의 경험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중 멀리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시각은 다른 감각보다 주도적 역할의 감각기관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서구 문화에서는 시각을 철학, 미학, 예술, 건축 등에서 중심 감각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건축공간이 명백하게 시각에 편향되어 흘러온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은 대부분 시각적 조형성과 보여지는 표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공간지각은 형태와 윤곽에 중심을 둔 시지각 법칙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원근법 시각체계에 의한 근대건축은 균질적이고 절대 공간을 추구하고 보이는 형상에 집중하였으며 공간경험에 있어 시각이외의 다른 감각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간과 공간이 밀접한 관계를 가

지는 공간실체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이 소외된 시각중심적인 기하학적 공간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공간의 본질은 시각적 조형성과 물질적인 공간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감각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감각과 공간경험을 통한 감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공간은 시각에 의한 형상과 이성 중심이 아닌 경험자의 몸과 감성적 공간과 관련되며 이는 단일지각에서 복합지각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근대적인 시각중심의 위계질서 대신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인간의 감각적 자극을 피하는 역동적인 지각의 탐구로 촉지적(Haptic)¹⁾ 측면의 공간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 질 들뢰즈는 그의 저서 『천개의 고원』에서 시각이 완전히 배제된 촉각적(Tactile)이라는 말보다 촉지적(Haptic)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촉지적이라 함은 시각과 촉각 두 감각기관을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눈자체가 이러한 시각적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천개의 고원, 김제인 역, 2003, p.938) 본 논문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촉각성에 주목하여 시각의 촉각적 기능, 즉 촉지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중심주의 서구의 근대성을 비판하고, 공간에서 촉지적 기능이 대두되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철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후기구조주의적 사유를 통하여 촉지적 공간에서의 감성²⁾적 특성 연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공간과 경험자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시각에만 의존한 단일지각과 시각의 촉지적 기능의 복합지각을 통한 경험자의 감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함으로 두 가지 지각 방식에 따른 감성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이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우월한 감각으로 간주하였던 과거의 시각편향주의에서 다른 감각과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감각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감각의 흐름을 철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공간경험에 있어 촉지적 지각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돌프 힐데브란트(Adolf Hildebrand, 1847-1921)의 지각론에 대한 탐구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 1858-1905)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 의해 어떻게 확장, 해석되었으며, 시각의 촉각적 기능을 의미하는 질 들뢰즈의 촉지적 지각론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를 공간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촉지적 공간에서의 감성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이론을 검증하고 두 지각방식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자극에 대한 감성을 생리현상, 심리현상, 동작, 언어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 중 언어는 인간이 느끼는 감성과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수단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미 분별 척도 SD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 method)을 이용하여 지각 방식에 따른 경험자의 감성 차이를 비교한다. 또한 SD법을 이용하여 응답되어진 설문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SPSS 18.0)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하여 감성 실험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과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감각의 흐름

2) 공간은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작용을 통해 지각되어지며 결과로 인간은 감성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복합감각을 통한 지각을 불러일으키는 촉지적 공간과 감성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현원,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간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2008 참조)

3) 한국실내디자인학회(오영근 외 9인),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디자인, 기문당, 2009 참조

2.1. 시각편향주의 : 감각체계의 불균형

고대 그리스의 시작과 함께 서구문화는 사고 자체를 시각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는 철학과 예술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첫째, 철학적 측면에서 시각중심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플라톤(Plato)의 철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 시력은 미를 전달할 수 있고 진리와 신에 이르는 감각⁴⁾의 매개로서 기능을 했다고 여겼다.

그리스 이래 철학 사상들은 깨끗한 시야와 지식을 유사하다고 보았는데,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Descartes)와 같은 합리론자들에게 지각은 이성의 활동이었다. 다양한 감각을 통한 지각을 배제하는 그의 급진적 합리주의는 근대 시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⁵⁾

둘째, 예술적 측면에서 시각중심사상은 그리스인들의 예술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예술은 관찰자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고,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여 객관적 비례를 중시한 이성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한 동적인 감각보다는 기하학과 비례를 통해 고정된 시각위주로 공간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시각은 가장 높고 촉각이 가장 낮은 차원의 감각으로 인간의 감각에 서열이 있다고 여겼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그의 저서 『회화론(1435)』에서 원근법의 원리를 풀어내는데 그는 실제 공간에 격자를 두고 눈을 고정하면서 균형이 잡히고 합리적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했다. 알베르티의 격자는 예술가의 환경에서 모든 냄새와 소리, 맛, 질감을 차단해 버린다. 눈은

<그림 1> 알베르티 뒤러, 알베르티의 원근법 작도원리

상황을 멀리서 개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감각을 통한 이해와 교류는 비중이 감소된다.⁷⁾ 모든 것을 하나의 초점을 향하여 집중시킨 원근법⁸⁾적인 습관에 따르면 공간 또한 관찰자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배치, 구성하여 정형화된 공간으로 바라보았으며 다른 감각 또는 인간의 내면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4) Mark M. Smith, Sensory History, 감각의 역사, 김상훈 역, SUBOOK, 2010, p.60

5) 박희령, 유기체론과 감각론 적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공간 디자인 연구, 홍대 박논, 2007, p.37

6) Ibid., p.121

7) Mark M. Smith, op. cit., pp.51-52

8) 원근법으로 그려낸 상은 사실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이유는 우리 눈이 두 개이고, 눈 즉 소실점은 움직이며 평면을 투시하는 망막은 정적 곡면이다. 본다는 것은 고정된 정신보다는 움직이는 육체에 가깝다. 탈근대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시각의 특권에서 벗어나 하위 개념이었던 촉각, 동감각을 부각시키려 하였다.(박희령 논문, p.121)

<표 1> 시각편향주의 흐름

구분	철학자/시대	내용
철학	플라톤	시선을 진리와 신에 이르는 제1의 감각으로 여김
	데카르트	지각은 이성의 활동이라 여겼으며 다양한 감각을 통한 지각을 배제하는 급진적 합리주의
예술	그리스 예술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여 객관적 비례를 중시
	르네상스 예술	예술은 관념의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여 주는 것. 알베르티의 원근법에 의한 지배

2.2. 감각의 확장

시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에는 생리학적, 지각적, 심리학적으로 훌륭한 근거들이 있지만 문제는 시각은 다른 감각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에서 제기된다.⁹⁾ 그러나 예술은 이성 에 의해 눈에 보여 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다양한 감각을 통한 지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 시각편향주의의 반대흐름

시각편향주의의 반대흐름을 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시각사고의 권위를 전복시키려 하였는데 다른 감각에 대하여 맹목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을 비판하며 이러한 태도에 ‘몸에 대한 혐오’라고 직설적인 명칭을 붙였다.

마틴 제이(Martin Jay)는 『내리뜬 눈: 이십세기 프랑스 사상에서 시각의 명예훼손』을 통하여 근대의 시각 중심적 문화가 발전되는 과정을 인쇄기 발명, 인공조명, 사진, 시간 등 새로운 영역에 걸쳐 설명하면서 시각 반대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모리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원근법체제를 거부하였고 몸에서 분리된 주체와 그 주체에 대한 특권을 행사하는 것에 끊임없이 비판했다. 그의 철학은 지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몸은 주변의 대상들을 보고 만지는 대상으로 감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시각편향주의의 반대흐름은 시각을 통한 이해는 결핍기에 그치기 때문에 시선은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현대는 진정성과 본질에 몰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른 감각을 고취시켰다.¹¹⁾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시각에 대해 예술에서도 새로운 장이 마련되고 있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균형이 잡힌 프레임, 투시도적 깊이감과 같은 개념들을 폐기하였는데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은 ‘세계가 우리를 만지는 방식을 시각화’하기를 갈망하였다.

입체파 역시 단일 초점을 폐기하면서, 반응적이며 주변적인 시야와 촉각에 의한 경험을 강화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경향의 예술가들이 투시도법에 의하고 실체가 아닌 가상의 깊이를 거부했다.¹²⁾

9)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skin (Architecture and senses), 건축과 감각, 김훈 역, 시공문화사, 2013, p.59

10) Ibid., pp.31-33

11) Mark M. Smith, op. cit., p.59

<표 2> 시각편향주의 반대흐름

구분	철학자/시대	내용
철학	니체	시각적 사고의 권위 비판
	마틴제이	시각편향적 문화 발전 과정을 통해 시각편향주의 반대 입장 분석
	메를로-폰티	원근법체제 비판, 몸을 주체로 하는 지각에 초점
예술	인상주의 회화	균형잡힌 프레임, 투시도적 깊이감 개념 폐기
	입체파 회화	단일 초점 거부, 반응적이며 주변적인 시야와 촉각에 의한 경험 강화

(2) 촉각(tactile)

일반적으로 시각에 비해 촉각은 원색적이고 지적이지만 못한 감각으로 여겨져 촉각성은 외면 받아왔다. 촉각은 비록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을 하는 동물적 감각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감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¹³⁾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촉각을 매우 실증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물리적 감각으로 직접성 때문에 반사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각은 대상에서 떨어져있어 본래부터 반사력이 있으며¹⁴⁾ 촉각은 시각보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적은 감각이라고 믿었다.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는 촉각을 시각과 연계하면서 촉각의 기억이 없다면 물질성, 거리, 공간적 깊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촉각이 단단함과 물러서지 않는 저항, 돌출에 대한 감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촉각으로 부터 분리된 시각은 거리, 외부성, 깊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간이나 몸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¹⁵⁾

이러한 촉각성에 대한 논의는 아돌프 히데브란트의 시각론에 근간하여 알로이스 리글과 발터 벤야민에게 발전시켜 해석되어지며 질 들뢰즈에 의해 촉지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공간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3. 촉지적 공간론의 전개

3.1. 근대적 시각론과 공간

(1) 아돌프 히데브란트의 시각론 : 근시와 원시

조각가였던 아돌프 히데브란트는 그의 저서 『조형미술의 형식』에서 시각을 통하여 대상을 지각하는 방법들 먼 곳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적 인상과 가까이에서 받아들여지는 시각적 인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관찰자가 대상을 멀리에서 볼 경우 전체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대상과 가까워질수록 대상을 한 눈에 보지 못하고 많은 두 눈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체 형상이 따로 떨어진 형상들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 시각적 인상은 점점 덜 명료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12) Juhani Pallasmaa, op. cit., p.54

13) Mark M. Smith, op. cit., p.61

14) Ibid., p.191

15) Juhani Pallasmaa, op. cit., p.63

게 ‘명료함’은 예술의 지각에 있어 가장 큰 가치라 생각했기에 원시에서 순수한 시각적 인상은 근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양의 ‘명료성’과 ‘통일성’은 관찰자가 전체상을 한눈에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파악할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

관찰자가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두 눈의 시선이 각도를 잃고 평행으로 바라볼 때 그 자체는 이차원적이다. 그러나 대상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 대상을 보기 위하여 다양한 위치와 두 눈의 조절이 필요하고 이러한 보는 관점의 변경에 의하여 삼차원이 부가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원시의 명료성에 대한 일관된 강조가 삼차원성의 직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것이다.¹⁷⁾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힐데브란트는 상이한 지각방식들이 예술형식에 결부될 수 있다는 생각의 단초를 제공한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또한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만져보는 것으로 일종의 운동행위로 변형된다.”¹⁹⁾ 언급하는데 이는 근시의 촉각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아돌프 힐데브란트의 시각론

(2) 시각과 근대건축

공간의 경우도 이러한 시각 중심적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근대적 공간론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감각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원근법으로 대표되는 근대공간론은 모든 공간을 균질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으로 상정함으로²⁰⁾ 주관적 체험과 감각적 작용이 결핍된 기하학적인 측정대상으로의 공간을 생산한다.

이러한 공간론은 근대의 건축, 도시계획에도 반영된다. 초기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건축은 철저하게 기하학적 원칙에 바탕을 두었으며, 스스로가 모듈이라고 부르는 원리를 따른다. 그는 도시계획에서도 도시를 기능별로 직교원칙에 따른 기하학적 도시를 건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은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잘 구축된 기능적 조닝계획으로 인간이 배제된 위에서 내려다본 이상적인 시각적 도시계획을 추구한다.²¹⁾ 이는 다양한 일상경험과 공간에서 몸

을 통한 적극적인 체험 및 현실감을 박탈한다.

또한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는 공간에서 시각에 의한 조형원리를 강조하였는데, 그의 건축은 새로운 재료 유리, 철,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일소점투시에 의한 지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적 조형성의 강조는 공간의 촉각적 물성의 약화로 나타났다.

시각은 건축공간을 통해 권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판옵티콘(Panopticon)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교도소 판옵티콘은 죄수들의 효과적 수용, 감시를 위해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두고 죄수방이 주변을 둘러싼 형태로 배치하여 간수 한 명이 죄수 수백명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비대칭성은 감시와 통제를 수월하게²²⁾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하는 시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부정적인 측면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합리성으로 인한 관리와 조직, 대량생산 등이 시각적으로 편향된 건축을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²³⁾

<표 3> 시각 중심적 근대건축

건축가	작품명	사 진	내 용
르 꼬르 뷔제	Villa Savoye (1929)		모듈러 체계에서 건축적 비례의 척도로 황금비를 사용하여 완벽한 기하학적 외관을 구성
	파리 도시계획안 (1934)		십자모양의 고층 사무용 빌딩을 축으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공항의 기능적 도시배치
미스 반 데어 로에	Barcelona Pavilion (1929)		수평적 대칭을 강조한 기하학적 구성을 보여주며 시선을 가로막는 수직벽보다 수평면의 강조로 환경을 유도함
제레미 벤담	Panopticon plan (1791)		격리, 수용, 감시하기 위한 시각적으로 정교한 건물로 시각적 권력을 보여줌

3.2. 촉각적 지각론과 공간

(1) 알로이스 리글 : 근시와 촉각성

리글은 그의 저서 『후기 로마의 예술 산업』²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힐데브란트 시각론의 근시와 원시는 근시-촉각과 원시-시각을 도입하여 두 개념 쌍으로 재해석되었으며 각각의 지각 방식이 가지는 가치를 철저히 상대화 하였다. 힐데브란트가 특권화한 원시는 리글에 와서 시각과 결부됨으로 우리에게 그저 보여 질 뿐 물질적 개체들로 지각되지 못하는 한계가 인식된다. 반면 근시는 촉각과 결부됨으로 그 고유한 가치가 재평가

16) 이동훈, 근대의 촉각적 지각론으로 본 ‘라움플란’과 ‘자유평면’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제12호 통권 제254호, 2009, p.222

17) Adolf Hildebrand, Das Problem der Form in der Bildenden Kunst 조형미술의 형식, 조창섭 역, 민음사, 1989, pp.21-22

18) 이동훈, op. cit., p.223

19) Adolf Hildebrand, op. cit., p.22

20) 박영욱, 시각 중심적 건축의 한계와 불투명성으로서의 공간, 시대와 철학 제18권 4호 통권41호, 2007, p.42

21) Ibid., pp.43-44

22) 서윤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궁리, 2009, pp.23-26

23) Juhani Pallasmaa, op. cit., p.59

24) Alois Riegl, Late Roman Art Industry, trans. Rolf Winkes, Giorgio Bretschneider Editore, Rome, 1985

되는데 단위대상들의 개별적 통일성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오직 촉각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촉각성의 개념을 물질로부터 공간으로 확장하였는데 “촉각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깊이라는 차원이 존재함을 명확히 알게 된다.”²⁵⁾고 하였다.

건축 내부공간의 경험은 관찰자가 대상에 근접할 것을 요구한다. 힐테브란트에 따르면, 명료하고도 통일적인 지각은 대상과 관찰자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리글은 판테온을 예로 반박하고 있다. 즉 경계를 이루는 면들에 의해 내부공간이 명료하게 인식가능한 입체적 볼륨으로 정의됨으로써, 내부공간도 촉각성에 의한 명료함과 지각의 확실성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근시와 촉각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촉지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알로이스 리글의 지각론

(2) 발터 벤야민 : 촉각성과 운동지각

벤야민은 그의 논문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²⁷⁾에서 리글과 마찬가지로 힐테브란트의 원시와 근시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벤야민 또한 힐테브란트의 시각론과 대조적으로 근시에 가치를 부여한다.

건축물의 수용은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는 이러한 수용방식은 관광객이 유명한 건물 앞에서 주의력을 집중하여 그 건물을 수용하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면이 갖는 관조²⁸⁾에 촉각적인 면이 없기 때문이다.²⁹⁾

그의 공간의 촉각성 개념은 정신이 아닌 몸이 행하는 운동지각으로써 건축물의 수용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건물의 안과 밖을 걸어 다닐 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단편적인 시각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물의 구조는 관조를 통해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 ‘익숙함’으로 우리 몸에 기입된다고 할 수 있다. 벤야민은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 형성되는 수용 방법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가 역사적 전환기라 부른 현대에서 인간의 지각구조에 부과된 과제는 단순히 시각, 관조를 통해 해결될 수가 없었다.³⁰⁾ 내부공간의 경험은 관찰자의 계속

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데, 이는 거리를 두고 전체상을 관조하는 특권적 시점이 없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내부공간의 파편적인 상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며 내부공간의 확실한 전체상은 움직임 속에서 계속 유보된다.³¹⁾ 즉 이러한 불확실한 공간속에서 경험자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전체상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되며, 이는 공간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림 4> 발터 벤야민의 지각론

(3) 질 들뢰즈 : 촉지적 공간

질 들뢰즈는 그의 저서 『감각의 논리』에서 프란시스 베이컨³²⁾의 회화를 통하여 자신의 감각론을 구체화 하였다. 베이컨 그림은 정지와 운동 상태가 뒤섞인 듯하고 대상을 왜곡시키며 형상을 해체시킨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작품을 시각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 쇼크와 같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촉지적 작품으로 분석한다.³³⁾

<그림 5> 질 들뢰즈의 신체와 감각의 관계도
(이숙경, 감각체계를 위한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 p.35 재인용)

앞서 살펴본 근시를 촉각적 공간과 관련지은 리글의 공간론은 들뢰즈에게도 수용되는데, 그는 근거리 파악은 촉지적 공간(Haptique Espace), 원거리 파악은 시각적 공간(Optical Espace)과 관련시켜 이론을 전개하였다. 들뢰즈에 따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간은 눈이 어느 한 곳에 쉽게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방향으로 눈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이곳저곳으로 떠돌게 된다. 들뢰즈의 철학 사상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매끈한 공간’

25) 이동훈, op. cit., p.223 재인용

26) Ibid., pp.223-224

27)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Suhrkamp, 1977

28) 觀(볼) 照(비출 조):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29) 최성만,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7, p.91

30)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 송고와 시물라크르의 이중주, 아트북스, 2003, p.50

31) 이동훈, op. cit., p.225

32) Bacon Francis, 1909~1992 : 영국 출신 화가로 재현하는 그림은 감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강렬한 감각적 표현력에 주목을 끌었다.

33) 오세호, 박물관의 전시공간의 감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2009, p.76

이라 부르는데 매끈한 공간이란 시각적으로 편편한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근시에 나타난 공간처럼 부분들이 분열된 공간이며, 결국 운동으로 지각하는 촉각적인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에게 매끈한 공간은 근접한 공간이자 동시에 촉지적인 공간인 것이다.³⁴⁾

또한 들뢰즈는 리글의 개념을 확장시켜 근거리 파악에 의한 촉지적 공간은 ‘촉각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이고 청각적일 수 있다’³⁵⁾고 말한다. 여기에서 촉지적이라는 말이 눈, 코, 귀, 입, 손이라는 개별기관의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고, 이 감각기관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거리 파악의 역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촉지적 공간은 시각이 직접적으로 감각대상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다른 감각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성되는 공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촉지적 공간은 시선의 이동과 몸의 움직임에 유발하여 근육감각과의 공명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³⁶⁾

<그림 6> 질 들뢰즈의 촉지적 공간

지금까지 지각론의 전개를 정리하여 보면 시각 중심적 공간은 대상을 원거리에서 원근법적이고 관조적으로 파악하여 경험자(주체)와 공간(대상)의 이분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촉지적 공간은 근거리에서 주체와 대상의 고착된 이분법적 지각형태를 폐기하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공간과 인간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총체적 느낌이 잡히지 않으며 기능적으로 완결된 체계가 아닌 근접적인 시선을 유도하여 영역사이의 유동적 흐름과 시간 및 주체의 움직임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신체적 공간을 촉지적 공간이라 정의한다.

4. 감성실험 및 결과분석

4.1. 실험의 개요 및 방법

원시-시각적/근시-촉지적 개념에 주목하여 시각적 지각(단일지각)과 촉지적 지각(복합지각)을 통한 경험자의 감성을 실제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비교 및 검증하고자 한다. 실험의 프로세스는 <표 4>와 같이 진행하였다.

34) 박영욱, op. cit., p.55 (천개의고원 pp.907-915 참조)

35)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op. cit., p.939

36) 박미영, 촉지적 공간으로서의 영화 ‘장미의 이름’의 장시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통권 97호, 2013, p.104

<표 4> 실험진행 과정

실험 단계	내용
1	감성어휘 수집 설문조사
2	1차 예비실험 실험기준설정
3	2차 예비실험 감성평가
4	본 실험 감성평가
5	결과분석 SD법, 통계 분석

실험의 대상은 확 트인 시야로 충분한 시각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나무를 선정하였다. 나무는 형태, 색 등의 시각적 지각 요소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 후각 등의 다른 감각을 작용할 수 있는 촉지적 요소가 다분하여 두 지각방식을 비교하는데 용이하다 사료된다.

<표 5> 실험환경 구축을 위한 작품 사례

구분	사례분석
외부	작가/작품명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 MoriYama House
	Jose Tarrago / La Azohia
	이미지
외·내부 중간	작가/작품명 Alberto Campo Baeza / Casa Guerrero
	Alberto Campo Baeza / Zamora Offices
	Alberto Campo Baeza / Casa Gaspar
내부	작가/작품명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 M House
	Suppose Design Office / House in Yagi
	Ricardo Legorreta / Sotogrande House

실험환경 구축은 <표 5>와 같은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한 미니멀리즘 작품 사례에 근거하여, 실험 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시각적 자극과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채색의 흰색 막을 배경으로 설치하였으며, 일관된 실험결과를 위하여 피 실험자는 정상시력 1.0³⁷⁾이상으로 한정하였다.

4.2. 감성어휘 수집 및 감성실험

(1) 감성어휘 수집

감성평가에 사용될 형용사어휘 선정을 위하여 감성언

37) 1909년 제11회 국제안과학회의 협정에 의해 정해진 정상시력 기준, 이태신,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2000

구관련 선행연구³⁸⁾ 및 서적³⁹⁾에서 494개의 어휘를 수집하였으며,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유연상을 통해 366개의 어휘를 수집하였다. 이중 중복된 의미의 어휘삭제를 통해 23개의 어휘를 추출한 후 유의도 평가를 통하여 형용사 12쌍의 상반어로 구성된 감성 어휘를 추출하였다. 감성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최종 감성어휘는 ‘정적이다/동적이다, 시시하다/재미있다,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낯설다/친밀하다,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평범하다/특이하다, 단조롭다/다양하다, 편안하다/불편하다, 제한적이다/자유롭다, 안정하다/흥분하다, 차갑다/따뜻하다,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와 같다.

(2) 실험의 거리기준 설정

감성 평가에 앞서 시각적, 촉지적 관찰거리의 실험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5일 pm 13:00~pm 18:00에 1차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거리는 촉각적 요소가 보이지 않고 형태적으로만 대상이 지각되지만, 촉지적 거리에서는 대상의 시각적 뿐만 아니라 촉각적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여 대상을 촉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시각적 거리와 촉지적 거리의 기준은 실험대상의 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 대상을 통해 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각적 거리는 실험 대상으로부터 17~31m까지 떨어진 지점부터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평균값 25m부터를 시각적 거리의 실험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점부터는 대상이 형태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험 대상으로부터 25m떨어진 지점에서 안쪽으로는 대상의 촉각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촉지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한다. 대상과 가까워 질수록 촉지적인 지각 비율이 점점 커지는데, 실험 대상 나무의 잎맥, 나무껍질 등 디테일한 촉각적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대상으로부터 1~6m까지로 설문결과가 나왔으며 평균값 3m떨어진 지점까지를 실험의 촉지적 거리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림 7> 감성평가 실험거리의 기준

이에 실험 대상에서 25m 떨어진 지점부터를 실험의

38) 김연중, 몸 움직임이 공간구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09, 한명홍, 감성어휘를 통한 공간 환경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2011 참조

39) 한국실내디자인학회(오영근 외 9인),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디자인, 기문당, 2009 참조

시각적 거리로 설정하고 촉지적 거리 안에서 대상의 세밀한 촉각적 부분까지 볼 수 있는 0m에서 3m까지를 실험의 촉지적 거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본 실험에 앞서 추출된 어휘를 통해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실험 감성평가를 실시하였다.

(3) 본 실험

예비실험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7월 31일 pm 1:00~pm 19:00에 4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 실험자에게 실험의 취지를 설명한 후 <그림 8>과 같이 상이한 두 지각방식에 따라 대상을 각각 관찰하고 이때 발생하는 움직임의 횟수와 관찰시간을 측정, 피 실험자는 감성척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8> 감성평가 실험

LMA⁴⁰⁾(Laban Movement Analysis)의 기본동작 중 예비실험에서 관찰되었던 가장 발생빈도수가 높은 주체의 움직임을 네 가지 기본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이동하기, 정지하기, 무게이동하기, 펴기’이다. 본 실험의 피 실험자의 움직임 변화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같은 대상을 관찰할 때 시각적 거리에서보다 촉지적 거리에서 동작변화가 더 많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모습의 차이가 있었다.

<표 6> 몸 움직임 평균 값

기본동작(LMA)	평균 움직임 횟수	
	A. 시각적 지각	B. 촉지적 지각
이동하기	1.0	2.2
정지하기	0.9	1.2
무게이동하기	1.7	3.9
펴기	0.5	1.8

<그림 9> 본 실험 감성평가 결과 및 관찰시간 그래프

40)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의 움직임 이론 LMA(Laban Movement Analysis)은 몸의 기본동작을 뛰기, 정지하기, 움직이기, 늘이기, 접기, 펴기, 모으기, 흩뿌리기, 무게이동하기, 지지하기, 회전하기, 이동하기 12가지로 제시한다. (이정환, 천장높이에 따른 감성공간디자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6호 통권 89호, 2011 참조)

<그림 9>은 본 실험의 7점 척도를 이용한 감성평가 결과이다. 측지적 거리에서의 결과가 시각적 거리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성어휘 평균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지각방식간의 감성어휘 치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시각적 거리에서의 감성 척도 평균값은 2.8이며, 측지적 거리에서의 평균값은 5.6으로 두 대상지 간의 비교가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4.3. 통계학적 감성실험 분석

감성실험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1) 감성척도의 신뢰성 검증

감성평가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알파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실험의 측정항목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평가할 수 있다. <표 7>은 실험의 신뢰도 분석 결과이며, 평균 신뢰도는 A평균값 0.787, B평균값 0.653으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신뢰도계수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측정항목임이 파악되었다.

(2) 공통성 검증을 통한 요인추출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표 8>는 각 변수의 공통성⁴¹⁾ 도출결과로 24개의 각 변수들이 45.9%에서 82.2%까지 설명되었으며 이 중 유의수준 0.5이상의 값을 갖지 못하는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주요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A시각적 지각에서 안정하다/흥분하다(0.459) 항목은 각각 지각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요인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각방식에 따른 감성어휘의 영향 요인 수를 지정하기

위해 아이겐 값(Eigenvalue) 1을 이용하였으며 1이상의 값을 가지는 요소들은 타당성이 있다. <표 9>는 주성분 분석의 결과로 시각적 지각에서 3개, 측지적 지각에서 4개 요인으로 그룹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주성분 분석

구분	요인	항목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s	설명된 총 분산		
				합계	분산(%)	누적(%)
A 시각적 지각 (단일감각)	1요인	시시하다/재미있다	.851	4.169	34.742	34.742
		평범하다/특이하다	.772			
		단조롭다/다양하다	.713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676			
		정적이다/동적이다	.666			
	2요인	낯설다/친밀하다	.900	2.412	20.099	54.841
		차갑다/따뜻하다	.869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635			
	3요인	제한적이다/자유롭다	.782	1.355	10.455	65.295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644			
B 측지적 지각 (복합감각)	1요인	편안하다/불편하다	.586	3.034	25.280	25.280
		평범하다/특이하다	.756			
		정적이다/동적이다	.661			
		안정하다/흥분하다	.641			
		편안하다/불편하다	.607			
	2요인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572	2.144	17.863	43.142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798			
		시시하다/재미있다	.690			
	3요인	단조롭다/다양하다	.630	1.388	11.570	54.712
		차갑다/따뜻하다	.740			
	4요인	제한적이다/자유롭다	.549	1.025	8.545	63.257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864			
		낯설다/친밀하다	.651			

<표 7> 신뢰도 분석

항목 제거시 Cronbach 알파		
항목	A	B
정적이다/동적이다	.769	.616
시시하다/재미있다	.758	.590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785	.655
낯설다/친밀하다	.768	.661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736	.627
평범하다/특이하다	.755	.637
단조롭다/다양하다	.758	.636
편안하다/불편하다	.810	.607
제한적이다/자유롭다	.807	.616
안정하다/흥분하다	.778	.645
차갑다/따뜻하다	.774	.680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755	.601
Cronbach의 알파	.787	.653

A-시각적 지각 B-측지적 지각 유의수준 $\alpha < .05$

<표 8> 공통성(Communality)

항목	공통성	
	A	B
정적이다/동적이다	.514	.546
시시하다/재미있다	.744	.658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633	.757
낯설다/친밀하다	.822	.694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802	.728
평범하다/특이하다	.633	.693
단조롭다/다양하다	.556	.780
편안하다/불편하다	.633	.504
제한적이다/자유롭다	.738	.508
안정하다/흥분하다	.459	.539
차갑다/따뜻하다	.763	.582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539	.62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유의수준 $\alpha < .05$

먼저 시각적 지각을 분석하여 보면 추출된 3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65.295%(누적기여율)를 설명함을 보여준다. 1요인에서는 요인적재량이 높은 순으로 시시하다/재미있다, 평범하다/특이하다, 단조롭다/다양하다,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정적이다/동적이다 총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34.742%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4.169를 나타낸다. 요인적재값은 0.666에서 0.851까지 비교적 높은 수치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요인에서는 낯설다/친밀하다, 차갑다/따뜻하다,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순으로 3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20.099%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2.412를 나타냈다. 3요인에서는 제한적이다/자유롭다,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편안하다/불편하다 순으로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10.455%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1.355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측지적 지각을 분석하여 보면 추출된 4개의 요인을 통해 전체분산의 63.257%를 설명함을 보여준다. 측지적 지각의 1요인에서는 요인적재량이 높은 순으로 평범하다/특이하다, 정적이다/동적이다, 안정하다/흥분하다, 편안하다/불편하다,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25.28%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3.034를 나타냈다. 2요인에서는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시시하다/재미있다, 단조롭다/다

41)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각 변수가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양하다 순으로 3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17.863%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2.144를 나타냈다. 3요인에서는 차갑다/따뜻하다, 제한적이다/자유롭다 순으로 2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11.57%를 차지하였고 아이겐 값 1.388를 나타냈다. 4요인에서는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낯설다/친밀하다 순으로 2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며 설명된 전체변량은 8.545%, 아이겐 값 1.025를 나타냈다.

(3) 지각방식에 따른 감성평가 차이 검증

지각방식에 따른 평가항목의 감성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시각적 지각과 촉지적 지각의 감성평군의 차이를 보면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값의 차이가 가장 크며, 낯설다/친밀하다는 값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항목들의 평균차이는

<표 10> 대응 표본-T검정

항목	A ↔ B	
	평균차	유의확률(양측)
정적이다/동적이다	-3.568	.000
시시하다/재미있다	-3.205	.000
상징적이다/사실적이다	-4.432	.000
낯설다/친밀하다	-1.318	.000
무감각적이다/감각적이다	-3.159	.000
평범하다/특이하다	-2.818	.000
단조롭다/다양하다	-3.818	.000
편안하다/불편하다	-1.477	.000
제한적이다/자유롭다	-2.023	.000
안정하다/흥분하다	-2.614	.000
차갑다/따뜻하다	-1.500	.000
고정적이다/가변적이다	-4.000	.000

A-시각적 지각 B-촉각적 지각 유의수준 $\alpha > 0.05$

다르지만 모든 항목의 평균차가 마이너스(-)값이므로 시각적 지각에 비해 촉지적 지각에서 감성평가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05의 유의수준을 넘지 않는 12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시각적 지각과 촉각적 지각에 따른 감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각 방식에 따라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각에 의한 근대적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복합지각을 통한 촉지적 공간에서의 감성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실증적 실험을 통하여 상이한 두 지각방식과 감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지각에 의한 시각적 공간은 원시에서 대상을 관조적으로 지각하며 주체와 대상을 분리시키고, 다른 감각과 상호작용으로부터 고립시키며, 대상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반면 촉지적 공간은 시각을 통해 다른 감각기관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 복합지각을 통한 공간각이 형성되며 몸의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근거리 지각에 의한 파편적 시선과 주관적 경험으로 경험자에 의해 공간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이고 신체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두 지각방식에 따른 감성평가 비교 결과, 시각에만 의존한 단일지각에서는 ‘친밀하다/낯설다’가 가장 높

은 평균치를 보이며, ‘사실적이다/상징적이다, 가변적이다/고정적이다’에서 낮은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지각에서는 ‘사실적이다/상징적이다, 다양하다/단조롭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편안하다’의 평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지각에 의한 지각보다 복합지각을 통한 지각이 평균적 감성척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각방식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감성척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촉지적 지각은 시각적 지각에 비해 피 실험자들의 관찰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은 몸의 움직임 횟수를 보이며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촉지적 지각방식과 인간의 감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건축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신체와 교감하는 공간체험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앞으로 촉지적 공간에 대한 발전적 연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Adolf Hildebrand, Das Problem der Form in der Bildenden Kunst, 조형미술의 형식, 조창섭 역, 민음사, 1989
2. Gilles Deleuze,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2008
3.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4.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skin (Architecture and senses), 건축과 감각, 김훈 역, 시공문화사, 2012
5. Mark M. Smith, Sensory History, 감각의 역사, 김상훈 역, SUBOOK, 2010
6. 서윤영,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궁리, 2009
7.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3
8. 한국실내디자인학회(오영근 외 9인),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 디자인, 기문당, 2009
9. 김연중, 몸 움직임이 공간구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8권 6호 통권 77호, 2009.12
10. 박미영, 촉지적 공간으로서의 영화 ‘장미의 이름’의 장식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통권 97호, 2013
11. 박영옥, 시각 중심적 건축의 한계와 불투명성으로서의 공간, 시대와 철학 제18권 4호 통권41호, 2007
12. 박희령, 유기체론과 감각론 적용을 통한 유비쿼터스 공간 디자인 연구, 홍대 박사논문, 2007
13. 오세호, 박물관의 전시공간의 감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0
14. 오영근, 몸 움직임에 따른 감성표현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7권 1호, 2008.02
15. 이동훈, 근대의 촉각적 지각론으로 본 ‘라오폴란’과 ‘자유평면’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제12호 통권 제254호, 2009.12
16. 이숙경, 감각체험을 위한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5
17. 이정환, 천장높이에 따른 감성공간디자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6호 통권 89호, 2011.12
18. 정현원,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홍대 박사논문, 2008

[논문접수 : 2013. 08. 30]

[1차 심사 : 2013. 09. 22]

[게재확정 : 2013. 10. 11]